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기에 밝혀주신 주체적문예리론

리 현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시기 주체적인 문학예술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문예리론들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기 결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보다 높은 경지에 끌어올리고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7권 202페이지)

1960년대 초엽 우리 문학예술부문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리론을 철저히 구현하고 자주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참다운 문예리론을 발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예술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적문예리론발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기에 밝혀주신 주체적문예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문학예술을 혁명적대가 뚜렷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혁명적문학예술로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사상리론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을 새롭게 정립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전적로작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우리 문학예술의 유일한 혁명전통》, 《항일혁명문학예술을 깊이 연구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화발전시키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전통은 항일혁명문학예술이라는것을 새롭게 정립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항일혁명문학예술과 《카프》문학예술의 발생발전과정, 해당 시기 작품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시고 《카프》문학예술이 우리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긍정적면과 함께 그의 본질적인 약점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였으며 항일혁명문학예술이 우리 문학예술의 력사적뿌리이며 혁명전통으로 된다는것을 론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예술창조사업에서 수령형상창조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전적로작 《수령을 형상하는것은 혁명적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에서 연극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는 위대한 수령님을 전설적영웅, 탁월한 군사전략가,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로 형상하였는데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의 사상예술적가치와 의의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 연극이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절찬을 받는 작품으로 될수 있는것은 수령님을 형상하였기때문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예술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작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신것은 우리 문학을 수령의 혁명문학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예술부문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민족문화를 적극 발전시키는 문제를 창작활동의 중요한 원칙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전적로작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주체적립장에서 대하여야 한

다》에서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바로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과 문화생활 그리고 사회주의적민족문화발전에 얼마나 리로운것인가 하는것을 옳게 분석평가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을 사람들이 읽도록 하는것도 그들을 사상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교양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만큼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작품을 읽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주체적립장에서 분석평가하고 창작경험을 본받는데서 기준으로 되는 원칙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예술창작활동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는것과 함께 우리의 민족성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전적로작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에 대하여》에서 주요인물들의 성격형상과 생활묘사에 대하여 분석하시면서 림격정을 비롯한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의감이 강하며 의리가 있는 인물로, 지혜롭고 힘있는 인간으로 형상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각이한 지역의 자연과 세태풍속이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소설은 민족적정서가 진한 작품이며 그것은 우리 민족의 성격적특성을 잘 살린 인물형상이나 향토적인 정취가 풍기는 생활세태나 풍속묘사에서도 나타나지만 문체에서도 강하게 표현되는데 이 소설은 고유한 우리 말을 풍부하게 잘 살려쓰고있으며 문장도 우리 인민이 즐겨쓰는 순 조선말식문장으로 되어있다고 분석하여주시였다.

이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고전소설의 진보적특성에 대하여》와 《해방전 진보적문학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작품에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을 새롭게 정립하시고 수령형상창조를 혁명적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으며 문예리론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밝혀주시므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은 주체적인 문학예술로 개화발전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기에 밝혀주신 주체적문예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평론활동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사상리론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평론건설과 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으며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문학예술사조와 창작방법, 작가와 작품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리론적평가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전적로작 《문학평론은 창작이다》를 발표하시여 우리의 문학평론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평론은 문학을 당의 문예정책과 우리 시대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힘있는 무기로 되며 당의 문예정책관철에로 작가들을 불려일으키고 당적이며 혁명적인 문학과 인연이 없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우리 문학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평론활동은 창작활동이며 따라서 평론가는 창작가이며 당적문학을 지켜선 전초병이라고 하시면서 평론활동의 본질과 평론가의 지위에 대하여 명

백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문제, 문제평을 많이 쓸데 대한 문제, 평론의 개성과 문체의 특성을 살리는 문제를 비롯하여 평론창작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 평론가육성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류문예사에 자취를 남긴 수많은 작가들과 작품들, 문학사조와 창작방법에 대하여서도 분석하시어 평론의 본보기를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작가들인 김삿갓, 박지원을 비롯한 고전 작가들과 최서해, 강경애와 같이 해방전에 활동한 작가들 그리고 조기천과 윤세중 등 해방후에 활동한 작가들의 창작활동과 그들이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그들의 작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기천을 우리 당과 인민의 사랑을 받는 시인으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시인으로 평가하신 고전적으로작 《인민의 사랑을 받는 시인의 삶은 영원하다》와 우리나라 봉건사회말기에 활동한 재능있는 시인인 김삿갓을 평가하신 고전적으로작 《김삿갓과 그의 시작품에 대하여》 등은 작가평의 고전적본보기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력사에 이름을 남긴 작가들뿐아니라 작품들에 대하여서도 분석평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전적으로작 《장편력사소설 〈림격정〉에 대하여》, 《장편소설 〈땅〉은 새형의 인간을 진실하게 형상한 성과작이다》, 《중편소설 〈전사들〉은 인민군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이다》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과 담화들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성황당》, 《경축대회》와 장편소설 《홍길동전》, 《옥루몽》, 《춘향전》, 《림격정》, 《인간문제》, 《대하는 흐른다》, 《땅》, 《전사들》, 연극 《조국산천에 안개개인다》, 경희극 《산울림》, 《소문없이 큰일했네》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시었다.

희극의 웃음은 어떤 웃음인가에 대하여 밝혀준 경희극 《소문없이 큰일했네》와 경희극에서는 긍정인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준 경희극 《산울림》,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를 뚜렷이 알수 있게 한 집단체조 《로동당시대》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평가는 우리 식 관평의 본보기로 된다.

이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가요와 전시가요들, 미술작품들과 도자기공예에 이르기까지 문학예술의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외국문학예술작품들에 대한 분석평가와 함께 각이한 문학사조와 창작방법에 대한 분석에서 나서는 리론적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세계문학유산가운데는 우수한 작품이 많다고 하시면서 소설 《어머니》, 《철의 흐름》, 《고난의 길》, 《등예》를 비롯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들, 착취사회에서의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준 《아큐정전》, 《축복》, 《레 미제라블》과 같은 작품들 그리고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의 부패성과 반인민성을 비판한 소설 《돛비와 아들》, 《부활》, 《죽은 녀》과 같은 작품들은 사람들의 계급의식과 투쟁정신을 높이고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작품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예부흥기 인문주의작품인 《돈 끼호페》와 계몽주의작품인 《로빈손 크루소》, 진보적량만주의작품인 《몽페 그리스도백작》과 《레 미제라블》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해당 시대 문학사조와 창작방법이 안고있는 긍정적측면과 제한성을 명

백히 밝혀주시었다.

이와 함께 량만주의문학과 사실주의문학의 호상관계문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원문제를 비롯하여 문학사조와 창작방법에 대한 분석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구체적인 해명을 주심으로써 문예리론과 평론활동의 고귀한 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문예리론에 관한 사상리론은 우리 문학예술을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문학예술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문예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감으로써 명작폭포로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한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